

“국민의힘, 탄핵 동참하라” 들끓는 광주 지역사회

민주당 지방의원들, 국회 당사 앞서 침묵시위 노동계 표결 참여 호소...북구 주민 피켓시위 중·고교생도 시국선언...오늘 천주교 시국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은 11일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광주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 당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침묵시위는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행동 결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12일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전달식' 등을 개최해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광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국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2만여명 중 8천여명이 함께했고 대회에는 7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적어도 광주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의 힘 당론이 탄핵 반대라도 광주시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 하나라도 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탄핵 촉구’ 침묵시위 11일 오후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방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북구주 민비상행동'은 이날 우유팩을 재활용해 만든 '탄핵 응원봉'을 들고 북구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 학생 7천18명이 포함된 중·고등학생의회는 "수많은 시민의 피로 쓰인 민주주의 역사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

달라"며 "조금이라도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조속히 지금의 위치에서 물러나 이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서 처벌받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역시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신속 집행하지 않고 헌정 중단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참가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검찰은 내란 전모를 감추는 데 골몰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탄핵 촉구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2일 오후 7시 동구 남동성당에서 육원진 대주교의 주례로 시국미사를 연다. 전남경찰청 정문 앞에선 서강오 전 전남경찰청장협의회 대표가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선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12일 오후 민주당무 앞 광장에서 '비상게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퇴진 결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하는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총학생회는 14일 1980년 오일 행진을 재현하는 가두 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13일엔 광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광주 서구 무각사 광주불교회관에서 시국법회가 불행된다. /변은진·안재영 기자

이재명 “탄핵 열차, 결코 멈출 수 없다”

게임 명분 위해 전쟁 유도한 정황 드러나 “탄핵안 의결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제” 與 김재섭 탄핵 찬성 밝혀...국힘내 5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는 어제 게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투표를 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14일 탄핵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하고, 외교부도 윤 대통령에게 외교 결정권이 있다고 설명한다"며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하락, 환율 폭등, 자영업 경기 침체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은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사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제희 의원에 이어, 전날에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진수 기자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의결

법사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 게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를 배제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

장, 한국법학교수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게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

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국회의장, 게임 사태 국정조사 추진...“尹 공개 증언 필요”

국회가 '12·3 비상게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된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비상게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럴 마음을 하지 않고 있어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